“대구 · 경북 태고종 화합 정진에 최선”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장 자운 스님 취임

태고종 대구경북통합교구 제2대 종무원장에 자운 스님이 취임했다.

태고종 대구경북통합교구는 1월 27일 김천파크호텔에서 종무원장 이 ·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과 대구경북통합종무원장 자운 스님,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 지방종회의장 혜석 스님, 이철우 국회의원, 박보생 김천시장 및 종도 회원 사찰 주지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임 종무원장 자운 스님(오른쪽 세 번째)과 국장단이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신임 종무원장 자운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종무원장 자운 스님은 교구 각 국장 스님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종무원장 자운 스님은 “태고종 대구경북 통합종무원의 위상과 불법 홍포를 위한 종도 화합, 수행정진에 최선의 노력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취임식인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의 격려사와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 · 호법원장 지현 스님의 축사, 법광 전법사의 발원문으로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빛고을나눔나무 홍보대사에 정율 스님

음성포교 기대… “기회 될 때마다 자비나눔 동참”

노래하는 수행자 정율 스님이 노(老)스님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대사로 나섰다.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는 1월 29일 광주불교회관에서 성악가 정율 스님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정율 스님은 향후 노(老)스님 의료비 지원사업, 네팔 어린이 자전거 지원사업 등 다양한 구호사업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광주 전남지역 불교계의 활성화와 홍보활동에 일익을 담당할 예정이다.



노래하는 수행자 정율 스님(오른쪽 두 번째)은 빛고을나눔나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정율 스님은 “빛고을나눔나무에서 지금까지 좋은 활동을 하고 있다. 세상이 각박하지만 어려운 노스님들을 위해 마음 내주신 지역 불교계 단체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감사하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정율 스님 홍보대사 위촉은 평소 인연이 있는 도계 스님(광주 소원정사 주지)의 소개로 병환에 있는 노스님 의료비 지원 승보공양에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정율 스님은 지난 1월 9일 승보공양을 위해 빛고을나눔나무에 500만원, 광주파라미타가 운영하는 동구청소년수련관에 5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자비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범어사, 사천왕재 봉행 ‘안전 기원’

전국적으로 안타까운 화재 재난이 일어나는 가운데 범어사가 사천왕재를 봉행하고, 국가의 안전과 평안을 기원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1월 31일 천왕문 앞에서 사천왕재를 개최했다. 사천왕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부처님의 법을 지키는 호법신으로, 범어사는 사천왕재를 봉행해 부산 시민의 안녕과 안전을 기원했다. 특히 범어사 천왕문은 2010년 12월 방화로 전소된 적이 있다. 이후 2012년 3월 26일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후 사천왕재를 봉행하고 있어 안전을 기원하는 상징이 됐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사천왕은 어린 아기를 생각하는 어머니처럼 중생을 적자와 같이 늘 생각한다”며 “어른을 잘 모시면 복이 오는 것처럼 사천왕을 기억하고 잘 모셔서 좋은 생각과 행동으로 좋은 인연을 만나 재앙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천왕재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원주 석경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자비 홍법’으로 일궈온 행복한 마을

부산 홍법사, 경로당 의료봉사 · 무료급식 13년째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홍법사가 위치한 두구동 일대가 행복마을을 일번지로 자리 잡고 있다. 홍법사를 주축으로 어르신들에게 의료봉사와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따뜻한 사랑방이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매월 2 · 4주 토요일, 봉사를 진행하는 날에는 어르신들이 줄지어 찾아올 정도로 유명해졌다. 게다가 봉사자들의 숨은 봉사가 무려 13년차에 접어들어 더욱 훈훈함을 전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인근에 위치한 조리경로당에 1월 27일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 40여 명이 삼삼오오 모였다. 어르신들은 연일 계속되는 거센 한파로 매서운 날씨에도 경로당 방문을 빠뜨릴 수 없다고 했다. 이유는 홍법사에서 진행하는 의료봉사팀 법연공덕회와 무료급식봉사팀인 묘행공덕회가 방문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은 침을 맞고, 아픈 곳을 설명하면서도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다. 평소 걸을 때마다 무릎이 쑤셨는데 침을 맞고 나면 한결 편안하다는 감사인사도 빠지지 않았다. 어깨가 아파 팔 올리기가 불편했던 할머니도 홍법사가 효자라며 엄지를 추켜세웠다.

경로당 밖에서는 따뜻한 밥과 국을 준비하느라 바빴다. 치료가 끝나면 바로 어르신들에게 공양을 대접해야 해서 추운 날씨에도 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묘행공덕회는 음식을 조리하는 시설이 마땅치 않아 자신들이 십시일반 모아 냉장고와 싱크대 등 기자재를 모두 마련했다. 추운 겨울엔 물이 잘 나오지 않아 봉사에 어려움을 겪지만 한 봉사자는 “조리 공간이 생긴 것도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운 여름 벽걸이 선풍기만 있으면 부자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크게 웃어보였다.

한의학과 교수 전문 진료
무료급식 위해 성금 모아
어르신 신뢰 · 봉사자 보람
“살아 있는 모범 자비도량”

홍법사는 2005년 1월부터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병원을 찾아 가려면 마을 어르신들이 차를 여러 차례 갈아타야해 번거로움이 많아 의료서비스가 필요해도 참는 일이 다반사였다. 당시 홍법사 신도 가운데 한의사가 있어 자발적으로 봉사팀을 꾸렸고, 현재는 동의대 한의학과에 홍법사 전문봉사팀이 있을 정도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동의대 한의학과는 이해웅 지도교수와 이상협 교수의 지도하에 전문적인 봉사가 이뤄지고 있어 신뢰도 높다. 법연공덕회는 치료 가운데 필요한 제반시설과 어르신 건강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어 마을을 지키는 약사보살로 불린다.


홍법사가 위치한 부산 두구동 일대가 행복마을을 일번지로 자리 잡고 있다. 홍법사는 매월 2 · 4주 토요일에 의료봉사와 무료급식 봉사를 13년 동안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동의대 한의학과서 의료봉사를 하는 모습.

봉사에 참여하는 한의대 학생들과 봉사자들도 “마음이 부자가 되고 보람차다”며 행복해했다.

김상원(본과3) 학생은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셔서 만성질병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드린다 생각하니 따뜻한 마음을 배우고 행복해지는 기분을 느낀다”고 말했다.

무료급식에 참여하는 봉사자 가운데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도 보였다. 이 어르신들은 자신을 “행복 비타민 봉사 꽃할매”라고 소개한 뒤 “봉사 받는 나이, 주는 나이가 어디 있나. 봉사하러 나오는 이 모든 활동이 기쁨”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홍법사는 매년 의료진료비를 지원하며 한의대 학생을 격려하는 정기모임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방앗간을 직접 운영해 어르신을 위한 별미도 제공하고 있다.

조은영 묘행공덕회장은 “조리 도구나 시설이 좋지 않아 불편함은 있어도 어르신들의 밝은 모습에 불편함마저도 녹아버릴 정도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송복순 법연공덕회장은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내 부모님 같아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게 된다. 이곳이 살아 있는 자비도량”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감사향기 가득한 겨울방학 됐어요”

(사)동련 어린이 · 청소년 동안거 ‘감사향기’ 회향

어린이 · 청소년 21일 안거 프로그램인 ‘내 안의 감사향기’가 회향했다.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신공)은 1월 28일 부산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어린이 · 청소년 동안거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회향법회는 어린이 수행 서원문 낭독과 격려사 및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이사장 신공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심산 스님은 감사향기 책자 인증 낙관을 찍고, 108염주를 선물하며 참가 아이들을 격려했다. 이후 과자 만다라 만들기와 소감문 발표가 이어졌다.

‘내 안의 감사향기’ 안거는 방학기간 동안 일기처럼 감사 내용과 참회 내용을 적어 하루를 돌아보고 간단한 사불, 사경, 진언 등을 통해 수행하고 도반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학생들은 21일 겨울방학기간 동안 매일 감사한 내용을 찾아 적으며 새로운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감사향기 책자에 인증 낙관을 찍어주는 스님과 이를 바라보는 참가 학생들.

이수빈(낙동초4 · 관음사) 학생은 “잃어버린 영어책을 찾게 돼 부처님께 감사했고, 수학문제를 잘 풀 수 있게 집중했던 것도 감사했다”며 “작은 것 하나하나 모두 감사할 내용들이 있다는 걸 알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됐다”고 말했다.

김지수(영천초2 · 홍법사) 학생은 “감사 이야기뿐 아니라 부처님께 하루 동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해서 좀 더 성실하게 방학생활을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사장 신공 스님은 “안거는 부처님 당시 오래전부터 해왔던 수행”이라며 “하루하루 감사함을 찾는 동안 소소한 주변 모든 것이 감사할 내용이란 걸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행복이 가득했을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심산 스님은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 수행을 하는 동안 더욱 성숙하고 성장했을 것”이라며 “감사향기가 또 하나의 수행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거 회향법회에는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심산 스님, 동련 이사장 신공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 사무국장 능후 스님을 비롯해 김해 여여정사 · 관음사 · 법륜 유치원 · 홍법사 등 자모 회원과 학생 1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여래사불교대학 환우 위한 나눔 봉사

제8회 인창병원 환우방문

부산 여래사 불교대학 학생들과 총동문회 회원들이 병원을 방문하고 환우 쾌유를 기원했다.

여래사불교대학(학장 목종)은 1월 30일 ‘제8회 인창병원 환우방문’을 진행하고 환우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여래사불교대학은 먼저 각 병실을 방문해 환우와 병원 종사자들에게 카스텔라와 두유 등 간식을 나누고, 작은 음악회를 열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여래사불교대학은 “투병 생활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쾌유를 빌기 위해 매년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래사불교대학은 소재지인 부산 동부 지역의 복지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인 반찬 배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제12기 송강(松江) 범음범패 전승회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학인(學人)을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00명
- 개강일시 : 2018년 3월 9일 금요일 오전 9시
- 수강자격 : 스님 및 불자
- 교육내용 : ❶ 사물다루는 법 ❷ 49재 의식, 천도재 위주 ❸ 천수바라, 나비춤 ❹ 극락무, 살풀이
- 준 비 물 : 요령, 목탁, 태징, 바라, 북
- 시 간 : 오전 9시 ~ 오후 3시(1년과정)
- 비 용 : 입회비 이십만원, 수강료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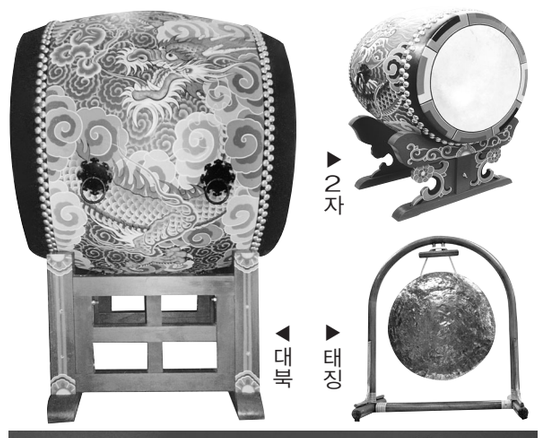
지도강사
- 범음범패 : 진효, 성우 스님
- 태 평 소 : 시우 스님
- 성명학 명리학 : 삼규, 해각 스님
- 살풀이 극락무 : 이채향 (여향)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길 봉운사
- 연 락 처 : 회장(대현) H·P 010-8725-3196 총무(도천) H·P 010-6266-8882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송강(松江)범음범패 전승회 회장 대현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